

93.4.16

영국 성공회 조지 커리 대주교

대한성공회의 초대 관구장 (김성수 주교) 취임식(16일) 집전차 14일 부인 에일린과 함께 내한한 조지 커리(57) 캔터베리대주교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민들의 전진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는 말로 첫 방한소감을 대신했다. 캔터베리대주교는 영국왕의 대관식을 주관하는 등 영국국교의 수장이면서, 세계 33개 성공회관구의 7천 5백만 신도를 대표한다.

영국성공회는 지난해 11월 여성사제 서품허용 결정 이



“한국 민주주의전진에 박수”

지난해 여성사제서품 허용 결정 이끌어내

후 내홍에 싸여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하원·상원을 거쳐 일러도 올해말 법안이 통과돼야 안수가 거행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며 거론하길 꺼렸다. 그러나 그는 “영국 안에서 앵글로 가톨릭 전통을 지키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이 로마 가톨릭 쪽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유감”이라면서 “갈등을 풀기 위해 가톨릭 당국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년 동안 여성사제 허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밝힌 데서 보듯 진보적 성직자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쏟아 ‘녹색 주교’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또 91년 취임설교 때 “자유와 권위 그리고 가치가 위협받으면 어느 교회라도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주교서품 4년 만에 신보수주의 조류가 잔류했던 당시 영국에서 종신직 수장으로 발탁된 배경엔 그가 성서의 급진적 해석에 반대하는 원칙론자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커리 대주교는 자신을 “진보적 전통주의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성공회, 가톨릭, 그리스정교 등 기독교 3대 교파의 협력관계가 영국성공회의 여성사제 안수 허용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영국교회가 여성안수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홍콩 등 12개 관구에선 이를 허용하는 등 전혀 새롭게 제기된 장애가 아니다”라며 낙관했다.

어린시절 빈민보호소에서 생활했던 노동계급 출신인 그는 “일생동안 기독교인들이 세속사회와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는가 물어왔다”면서 “17일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하면 정치와 신앙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땐 어떻게 해소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이신 기자